

“경호처 간부 ‘尹이 칼 써라 지시’ 제보” “경찰에 관저 기밀 전달” ‘尹의 방패’ 경호처, 내부균열 확산

野 “尹, 12일 경호처 6명과 오찬
 같이라도 써서 막으라 주문” 공개
 경호처는 ‘기밀유출’ 간부 대기발령
 강경파 지휘부에 내부 동요 본격화



한남동 관저 산책하는尹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본보 망원렌즈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내부 제보 폭로가 이어졌다. 전영한 기자 scoopyh@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같이라도 써서 막으라’는 등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에선 “허위 사실”이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는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하며 김성훈 차장(차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해 대기발령된 경호3부장 A 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기밀 유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 지휘부에 나선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진영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같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간부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전날 김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무력 사용 지시에 반발한 간부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대기발령된) 대상자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을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호처 간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경찰에 협력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셈이다.

경호처 간부가 야당 의원을 찾아 경호 대상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보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경찰에 관저 내부 시설을 알려준 것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경호처 특성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통령 신변의 절대 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와 영장 집행 저지의 정당성 여부 사이에서 고심하던 일부 직원들이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주장을 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 폭로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날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journal@donga.com·안규영·이상환 기자
 ▶A3면에 관련기사

공수처,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

내일 집행 가능성... “방해면 처벌”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른바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

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관리대상행위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범주에 대한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민기 koo@donga.com·이상환·고도배 기자
 ▶A4면에 관련기사

“연금-의료-소득 노후버팀목이 없다” 초고령사회, 경제도 늙어가는 한국

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후주 등 영올드가 소비-생산 주축
 초노년 소비 줄여 경제활력 타격
 “새 인구구조 맞춘 사회개혁 시급”

영올드(Young Old)
 젊고 건강한 60, 70대 고령자. 이전 세대보다 평균 학력이 높고 구매력을 갖춘 은퇴 이후에도 여행과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덜랜드 ‘부파(BUPA) 은퇴자 마을’ 아파트 안 수영장을 지나 공을 거슬러 들이쳐서 70, 80대 입주자 11명이 골대가 그려진 매트 위에서 공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돌아가며 공을 굴리던 이들은 공이 골대 가까이 갈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20년 전 은퇴한 제프 듀발 씨(77)도 부인과 함께 4년 전 이곳으로 이사 왔다. 집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물론이고 시고 행사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이날도 수중 에어로빅, 공에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있었다. 매일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은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에”이라며 웃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에선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10년), 독일(8년), 프랑스(39년)에 뒤처진 달리 고령사회가 된 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것.

하지만 ‘실버 시프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시니어를 중심에 놓고 연금, 정년, 의료, 교육 등 모든 정책과 산업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시점이지만 개혁의 움직임은 더딘 것이다. 건강과 소득을 갖춘 노년층을 일컫는 영올드(Young Old)가 소비와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년층은 노후 버팀목의 부재 속에 소비를 줄이고 있다.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기준 2%대에 불과하고, 취업 시장에 뛰어들 노년 절반은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현실 때문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며 저성장 고착화될 위기 상황에 준비 없이 맞이한 수중 에어로빅, 공에 수업, 카드 게임 등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있었다. 매일 7000호주달러(약 640만 원)씩 나오는 퇴직연금이 있어 750호주달러(약 68만 원)의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하다고 느낀다. 그는 “생활비를 내고 남은 돈은 여행이나 파티, 가족을 위한 선물에 쓴다. 혜택이 좋은 연금 덕분에”이라며 웃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연금부담 의료, 산업 현장까지 모든 사회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아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정 ▶A2면에 시리즈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핵동결 스몰딜’ 가능성”

“안전한 北비핵화 어렵다고 판단
 군축 등 작은 규모의 협상 나설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리스크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배제한 ‘북·미 직거래’ 우려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과거 김 위원장과 정상 회담 성사를 1기 (행정부)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상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인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 dapaper@donga.com
 ▶A6면에 계속

국내/해외
 골프 부킹 성공률
100% 보장!

제주 안달루시아 골프 & 타운하우스

제주 골프장 12곳, 해외 23개 도시에서 품격있게 즐기세요!
양수/양도 가능, 안전한 보증 시스템

무기명 4인 회원대우

제주 골프장 12곳 이용

해외 6개국 골프장 이용

상품명	인원	그린비	금액	골프	
STANDARD	무기명 4인	주중 10만원	주말 13만원	3,000만원	월 4회
GOLD	무기명 4인	주중 5만원	주말 8만 5천원	5,000만원	월 4회



尹체포 오늘 집행할듯, 경찰 3700명 출동 준비

이르면 오전 2차 체포영장 집행
 경찰, 체포-수색-인압조 투입 계획
 공수처-경찰-경호처 3차회동 민선
 경호처 “이번에도尹 체포 저지”

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르면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들, 공수처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열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벽과 철조망, 체포를 막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조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씩 막는다’는 방법도 언급했다고 한다.

경찰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2700명 이상 등 총 37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다. 각각 윤 대통령 체포조와 수색조, 경호처 진입조 등으로 나뉘어 투입한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조에는 수사관 500여 명을 투입한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 등 기용 인력 전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1명도 17일까지 파견 받아 투입한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8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호처와 ‘3차 회동’을 가졌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체포 과정에서 벌어질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리였지만, 경호처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시간도 안 돼 회동이 종료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병목적으로(영장) 집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만났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정치

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경호처와 함께 관저를 경호하는 수도 방위사령부 55경비대로부터 판저 출입을 허락 받았다고 공지했지만,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며 “경호처의 추가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바로잡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 및 방문 조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 “상의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의 제인에 대해 “저희들과 상의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제3의 장소(조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성환 payback@donga.com·송유근·고도에 기자
 ▶A3-4-5-6면에 관련기사

英-獨 영을드 “70대도 현역”

실버 시프트, 영을드가 온다



韓 55~64세 근로자 34%가 임시직
 구조개혁 없이 잠재성장률 0%대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회사들) 관두려 하는 건 차별 아닌가요?”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프랑코 괴를 씨(67)는 유럽 전역 30여 개 지역을 둔 화물 운송 업체의 종업이다. 10년 전에 일찌감치 노후 준비를 끝냈는데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괴를 씨는 “자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현역으로 계속 뿔 것”이라고 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만난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은 왕성한 경제 활동을 자부하고 있었다. 영국 런던 현지 은행의 위험 관리 업무 총괄자인 뱌 카느리 씨(64)는 “직장에서 책임을 다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75세가 넘어야 은행에서 활약하는 사례도 있다. 나 역시 건강만 허락한다면 70대에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다. 선진국 ‘영 올드’들과 달리 한국의 고령층은 현역 시절 숙련된 기술을 살리지 못한 채 단순 임시직에 그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5~64세 국내 임금근로자 중 34.4%는 기간제 근로자 등 임시고용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2년 일련(22.5%)과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됐다.

올해부터 1965년생을 시작으로 95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소득 절반에 시달리는 노인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최근 “구조개혁이 없을 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고령층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2면에 시리즈

체육회장에 ‘탁구영웅’ 유승민
 이기흥 꺾고 당선 이번 A22면



尹, 탄핵심판 1차 변론 불출석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3분 만에 종료됐다.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손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현재,尹측 ‘재판관 기피-변론 일정 이의신청’ 전부 기각

尹불출석 첫 탄핵변론 3분만에 종료
 재판관 7명 ‘기피신청 기각’ 일치
 “여기 현재이지 형사법정 아니다”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 수용 안해

10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을 맡은 문형석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현재법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일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현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원날 법원 ‘정해진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런(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괄 분의 일정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

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 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현재는 별도의 기피 신청 기각이 없을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할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도 일축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지정)은 헌법 제 30조 2항, 현재 삼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A5면에 관련기사

서울대 연구진의 과학적 설계 (특허번호 : 10-2467837) 특허원료(무순추출분말) 함유



BOBSNU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주식회사 보스누

우리 몸에는 알부민이 왜 필요할까요?

내 몸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알부민



의학 상담 전문가는 간과 신장을 기계로 비유하자면 “더러운 짐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기”와 같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인체의 독소를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다. 사실, 의학 분야 이전에는 옛 어른들이 간 영양 회복제처럼 알부민 주사를 마구 맞던 시절이 있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드는데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알부민이 모자라게 되고 체액 평형이 깨지면서 혈관내 수분이 오히려 빠져 나가게 된다. 그 결과 복수가 차거나 다리가 심하게 붓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콩팥(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 나가면 알부민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알부민을 반드시 보충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알부민이 부족해 지면 부족한 만큼 채워 주면 좋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주)보스누에서 간편하게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인 ‘알부민 골드플러스’ 제품을 출시하여 화제다. 이 제품은 알부민 복합물 80%(16.00mg), L-아르기닌 150mg, L-아스파르트산 60mg, 아연 2.55mg, 비타민B6 0.45mg, 무순추출분말(무순50%) 0.2mg을 혼합한 액상으로 개발하였다. 복용법은 1일 1회(20ml)를 식전 식후 아무때나 복용하여도 효능을 볼 수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전에 복용하면 식후에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시는 알부민 출시 기념으로 시중판매가 398,000원에서 최대 67% 할인된 금액으로 1박스(1개월분) 129,000원에 드리며 2박스 구매시 1박스 더 드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www.한아름365.com 또는 1833-5283로 하시면 된다. 입금계좌 (농협) 301-0313-3527-81 예금주: (주)한아름365이다.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 가능) (택배비 4,000원 소비자 부담)

이런 분들께 알부민을 권해드립니다

- 알부민 수치가 낮아 걱정인 분
- 기력이 떨어져 활력을 허시는 부모님
- 잦은 피식과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분
-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유럽선 숙련 인력 '귀하신 몸'... “정년 2년 지나도 금융회사 일해”

—독일 68세 금융인

〈2〉 ‘영 올드 현역’ 이 된다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게 여전히 재밌어요.”

지난해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난 벨리 야부다 씨(68)는 2년 전 정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현지 금융회사에서 활약하고 있다. 야부다 씨는 “난방비, 관리비 등 웬만한 물가가 다 올랐는데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하니 생활비에도 물론 제법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인더부한 건축 설계 엔지니어인 안 브뤼델 씨(73)는 네이메헌 지역의 철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브뤼델 씨는 “네덜란드 스텝을 국제공항과 네이메헌을 오가는 열차가 1시간에 세 번 정도 오는데, 이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2029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일을 하지 않겠다”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도 업무 의욕이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며 전기 분야 엔지니어로서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내비쳤다.

● 유럽에서는 70대도 엔지니어로 활약

본보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만난 ‘영 올드’들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자로서 활발한 현장을 누리고 있었다. 정부, 지역사회 등이 이들을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영 올드’ 채용에 나서고 있다. 숙련 노동자가 갈수록 귀해지는 데다 ‘영 올드’ 소비자의 부상에 발맞춰 고령 근로자를 중시하는 움직임이다.

야부다 씨는 “숙련 인력이 퇴직하지 않고 회사에 오랜 기간 기여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사항”이라며 “주요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부족해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뤼델 씨도 “제법 많은 기업들이 나 같은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분위기”라며 “대기업들 역시 고령층의 근속 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요국 고령층 일자리 지원 사례	
네덜란드	· 은퇴자 전세계 중소기업 파견하는 PUM · 5개 대학의 합동 교육 프로그램 'HOVO'
독일	· 퇴직자 재취업 시 연금 삭감 폐지 · '시민대학'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영국	· 생애설계 플랫폼 'Mid-life MOT' 출시

네덜란드-영국, 정년제도 없애고
독일은 정년 67세로 단계적 상향
민관 플랫폼으로 경제활동 지원

한국 고령층 일자리, 복지성 대부분
“직무설계 등으로 질적 성장 유도할”

실제로 독일 기업 보쉬(Bosch)는 기술력 유지 위해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고령 근로자에게 교육, 멘토 역할을 맡기고 있으며 영국의 보편사 아비바 역시 고용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50대로 구성하고 있다.

각 정부도 ‘영 올드’들이 일터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네덜란드와 영국은 정년 제도를 사실상 없앴으며, 독일은 현재의 정년 연령인 만 65세를 2029년까지 만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있다. 독일 노동사회부 관계자는 “보시 이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경력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며 “2023년 1월부터는 조기 퇴직한 고령자도 연금 삭감 없이 추가 소득을 무제한으로 받게 되는 등 퇴직자의 재취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생애 설계 서비스’를 출시한 사례



현역서 뛰는 영 올드

“건강이 허락하는 한 70세 이후도 계속 일하고 싶다”



맵 카트리(64세)
주거지 ▶ 영국 런던 활동 영역 ▶ 금융



“일이 재밌어 연금 받으며 여전히 근무 중”



프랑크 괴들(67세)
▶ 독일 프랑크푸르트 ▶ 회계 운송



“기술자로서 역량을 평생 활용하며 살고 싶다”



안 브뤼델(73세)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 전기 설비

도 있다. 2020년 영국 노동연금부는 중장년층들이 노후 준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재취업 관련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Mid-life MOT’를 출시했다. MOT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장년층이 스스로 삶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영국 런던에서 파트타임 컴퓨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김기정(77·58) 씨는 “정년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학교·기업 등도 시니어 일자리 지원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도 ‘영 올드’들이 고유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이끔어주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먼, 티버르흐 등 5개 대학이 합심해 노인들

을 위한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만들었다.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HOVO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카를린 판베르헌 다비데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번역 일을 하는 60대 학생이 건축 수업을 들은 다음 관련 직책을 번역에 출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는 은퇴자들을 매년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으로 파견시키는 ‘PUM’이란 비영리단체도 있다. 배터랑 근로자들의 수십 년간 숙련된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전수해주는 역할이다. PUM은 1978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전 세계 4만 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 왔으며, 네덜란드 정부의 재정 지원도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900여 개의 ‘시민대학’이 영 올드 교육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지원에 양질의 강사들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시니어사무소’도 독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돕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50세 이상 구직자들에게 현지 지역 기업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연결해준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고령층이 일터의 일거리를 갖고 상가간 근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야부노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존의 고령자 일자리라는 질적인 수준과 지속 가능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제성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직무 설계, 취업 개선 능력 등을 지원해 시니어 일터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 60세이상 근로자 30만명 늘었는데... 노하우 못 살리고 단순 노무

(전년 대비)

2023년 65세 이상 38%가 경제활동 절반은 한달 받는 돈 100만원 안돼
“직무 연속성 확보할 대책 시급”

한국의 일하는 노인 수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은 편이며 지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고용시장 성장세를 견인했고 그 결과 한국은 모든 연령대 중 60세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영 올드’가

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살려 활동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고령층 대부분은 행정 경력과 무관한 단순 노무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1년 전보다 29만8000명 불어나 87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취업자 수는 12만3000명 늘었는데, 2.4배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60세 이상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로 올라갔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일하는 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3년 9월까지

60세 이상은 10대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가장 적은 연령대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20대 취업자를 뛰어넘기 시작하더니, 2020년 9월 30대, 2023년 5월 40대를 차례로 제쳤고 지난해 9월에는 50대보다도 많아졌다. 지금은 전체 취업자의 4명 중 1명(23.5%·지난해 11월 기준)이 60세 이상이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2003년엔 65세 이상 10명 중 3명(28.6%)만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는 등 경제활동이 활발했다. 2023년에는 38.3%로 경종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003년에

1등, 2023년에도 1등이다. 2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2003년(일본 20.2%·8.4%포인트)보다 2023년(일본 25.7%·12.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저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2분기(4~6월)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46.7%로 절반에 달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65세 이상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고령 근로자 절반이 일하는 이유로 ‘생계 유지’

를 꼽고 있는 점 역시 일해도 가난한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중년기 이후 취업자들은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이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저부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양정준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
▽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
뉴욕=임유선 특파원, 파리=조은이 특파원
서울=전주영 이윤홍 조영형 신하영 기자

Wis Healthy

혈행·근육·눈·간 건강에 전립선 건강까지!

하루 한 장으로 한번에!
하루엔진 50+ 멘

프라스산 밀크씨슬 100% 함유: 간 건강

프리미엄 마그네슘: 근육 기능 유지
홍국은행잎추출물: 콜레스테롤·기력력 개선

식약처 기능성 인정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 유지
노르웨이산 rTG오메가3: 혈행 건강
루테인** 20mg: 눈 건강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D3 함유

SAMJIN 삼진제약
건강기능식품사업부



구매 및 제품문의
02-3140-0745
(평일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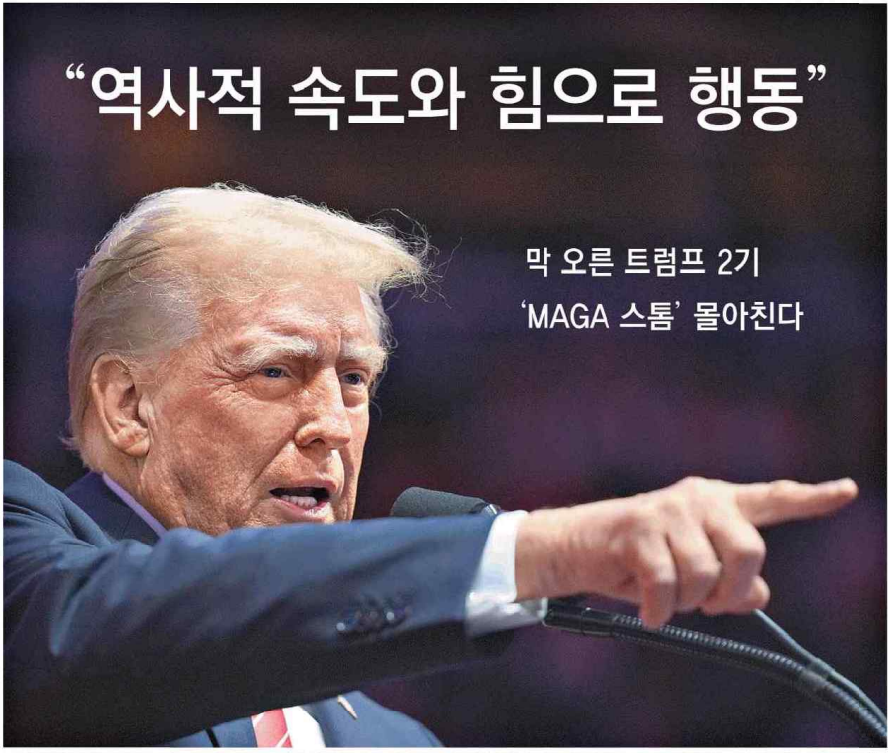
고객 감사 무료 증정 이벤트!

혜택 1. 두박스 이상 구매 시
키무트 효소 1개월분 증정

혜택 2. 5박스 구매 시 정품 박스 무료 증정

제조장: 콜라비엔(에이치)유용성공장

*관절, 혈행, 장 건강 등 삼진제약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전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속도와 힘으로 행동”

막 오른 트럼프 2기
 ‘MAGA 스톰’ 몰아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대형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취임 축하 행사인 ‘마가(MAGA) 집회’에서 “미국이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며 “미국의 힘과 번영, 존엄과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날인 20일(반)이던, 중국 견제, 화석에너지 장려 등에 관한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사책을 일거에 지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워싱턴=AP 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정오(현지 시간) 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2017년 1월~2021년 1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2번째 임기 중 더욱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힘, 단결, 공정성 등을 강조하며 스물셋 이민자 추방 선언장부 개혁(7독권 판교집단 해체 등) 스타양성-형평성-포용성(IDE) 정책 철회 △화석 에너지 사용 확대 △산업 보호 및 중진 정책 등을 속속담 있게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7기 취임사에서 ‘살육(carnage)’ ‘황폐(disrepair)’ ‘쇠퇴(decay)’ ‘상실(dissipate)’ 등의 표현 등을 나열하며 당시 미국 상황을 비판하는 데 비중을 크게 뒀던 이번 취임사에서 미국 내 시급한 문제와 해결책을 부각시킨 것.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 일련의 역사적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우리가 국가적 성공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과 낙관을 갖고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

트럼프, 美 47대 대통령 취임
 “4년간 이어져 온 美 쇠퇴 끝낼 때”
 ‘상식의 혁명’ 내세워 변화 예고
 “국경침입 저지하고 석유 규제 해제
 수천 개 공장 美로 다시 가져올 것”
 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최근 캐나다, 파나마, 덴마크령 그린란드 등 우방국에 대한 주권 침해 발언도 수차례 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를 통해 향후 힘을 앞세운 ‘팽창주의’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암시한 거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행사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집회에서도 그런 자신이 강조해 온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년간 이어진 미국 쇠퇴라는 기나긴 막은 내리고 미국의 힘과 번영, 존엄

과 자부심을 영원히 다시 가져올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책 추진이 가능한 ‘행정명령’을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로 발동해 불법 이민자 추방과 연방정부 개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100여 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 가운데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은 내가 취임 선서를 한 지 몇 시간 내로 폐기될 것”이라며 “여러분은 역사적인 행정명령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경에 대한 침입을 저지하고 우리의 부를 되찾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액체(금석유)를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물가를 낮추고 임금을 올리고 수천 개의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와 독특한 정책을 기반으로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산으로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신우주 특파원 nichsin@dongna.com / 이지운 기자
 ▶A2·3·18면에 관련기사

尹측 “尹, 오늘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 공수처, 구치소 강제구인 조사는 불발

尹측 “남은 변론 가능한 한 다 출석”
 조사 계속 거부... 구인 제시도 방침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의의지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대변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인어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

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강제구인 중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21일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변론기일)에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정동 대통령 안간기 속안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20일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대통령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
 ▶A4면에 관련기사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66명 구속영장

체포된 90명 중 46명이 2030세대
 사범부 “폭력사주 철저히 수사 필요”
 경찰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가 체포된 46명 중 18, 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과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편의 폭력 시위에 가담한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부지법 내부에 난입한 46명 전월하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을 막아선 10명, 경찰을 때리거나 서부지법 담을 넘어간 10명 등 총 6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4명에 대해서 “헌재 입건

상태로 유지상에 수사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체포된 이들 중엔 구속자 83만 명을 보유한 보수 유튜브도 있었다. 경찰은 2000대가 46명(51%)이었다. 10대 청소년도 1명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교사·방송 행위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전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중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불법 가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연설회에서 “윤석열(국회의원)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 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라며 “강남서장이 답변하길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있고 끝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남혁 forward@dongna.com · 권오혁·이상환 기자
 ▶A5·6면에 관련기사

실버 시프트, 영올드가 온다 <3> 경제 살리는 ‘소비 큰손’

자산과 소득, 건강을 갖춘 6070 ‘젊은’ 고령층 ‘영올드(Young Old)’가 소비의 주체로서 선진국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K팝에 열중하고, 순수 학문에 심취하며 더 나아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축이 될 것이다. 한국도 ‘영올드’가 부상하고 있지만 ‘질 한 채’에 자신이 묶여 소비 주체로 부상하기엔 한계가 적지 않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의 판매수익금 전액은 장학사업에 쓰입니다!

연세 마시는 알부민 골드플러스 출시!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필수조건! - 알부민(Albumin)!

늘 피곤하고 기력이 쇠하시면
알부민 부족 아닐까요?!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의 연구 노하우로 자신 있게 만든 알부민 골드 플러스!

3개월분(3박스X90포) 99,000원
 6개월분(6박스) 구입시 1만원 더 할인!

•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의 특허물질(진득찰) 함유! • 아미노산, 비타민, 타우린 함유!

www.한아름365.com 문의 1833-5288 입금계좌<농협>301-0313-3527-81 (주)한아름365 <신용카드 90%이율 가능> <대매비 4,000원 소비자 부담>

美소비 22% 노인 지갑서 나와... 돈있는 '영올드', 경제활력 무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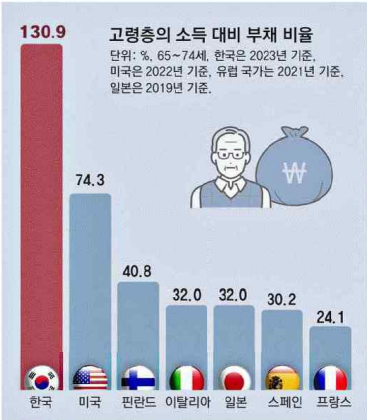
(65세 이상)

(젊은 노인)

(3) 경제 살리는 '소비 큰손'

일본의 구미이 아쓰코(熊井敦子·80) 씨는 2023년 십수 년간 근무했던 콜센터 직장을 떠났다. 이제 는 평생 모은 금융 자산과 연금 등 월 33만 엔가량의 실소득을 기반으로 하루를 한국어 공부로 시작 한다. 일주일에 한국어학당을 두 번 이상 다니며 틈이 나면 한국 여행에도 나선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남 함안을 찾아 전통 문화를,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서 식도락을 즐겼다. 그는 "드라마, 케이 팝 콘서트를 한국어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게 이제는 삶의 큰 부분으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소득·교육수준 높아 사회주체 부상
여행·자기계발 등 아낌없이 투자
재능 기부 등 사회적 가치 창출도



글로벌 주요국의 금융 자산 비중
단위: %, 순자산 대비 금융 자산 비중, 2023년 기준.



▲ 지난해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암스테르담자유대 분관 지하 2층에서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 수강생들이 문학 수업을 듣고 있다. HOVO 제공



▲ 일본 도쿄 주일 한국문화원 세창홀을 찾은 구미이 아쓰코 씨. 도쿄=신우경 기자 yes@donga.com

韓, 홀몸노인 56% '노후 준비 안돼'

후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빅로프트에 사는 에 니터 하워드 씨(70)는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 후 이웃 주민들에게 미술 수업을 하고 책을 쓰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연금(월 4000달러) 덕에 틈틈이 돈을 모아 여행에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올해 9월에는 70세 생일을 맞아 두아들과 네 명의 손주와 유럽산 여행을 계획 중이다.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며,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는 강력한 자산을 기반으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들은 기업에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선 돈 있는 영올드가 경제의 '비밀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따르면 70세 이상 미국인은 현재 총가계자산의 약 26%를 보유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지출의 약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웰스트리트저널(WJS)은 "(고령 세대는) 부를 축적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 **배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강연자도 변신**
지적 호기심을 자랑하며 배움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사회적 활동에 적극 나서는 것도 영올드의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분관 지하 2층의 한 강의실. 한터리에, 돋보기를 고 아래로 내려 쓴 수강생 40여 명이 모

여 앉아 판서를 노트에 옮겨 적고 있었다. 이날 수업 주제는 천문학. 시간제로 일하며 짜임새 수업에 나오는 60대부터 100세가 압박한 수강생까지 '별의 법칙'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이 강의는 레이먼, 탐버르흐 등 네덜란드 대학 5곳이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는 약 7000명의 시니어가 수업을 듣고 있다. 네덜란드 전체로 넓혀면 2만5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오프라인 수강생을 모집한 '미술사 코스'가 매주 2시간씩 10회 진행되는데 강좌 가격이 355유로(약 54만 원)로, 전반적으로 수강료가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올드들의 등록 열기는 뜨겁다.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던 피터 그리피스 씨(76)는 은퇴 이후 영국 남동부에 소규모 강의를 다니며 자신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홍콩 국적이 조종사부터 러시아 시류 재벌, 카자흐

스탄 팝업 재벌, 핑키에의 한 금융인 등의 개인 파 일먼트로 일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영어 교육' 사회적 가치 창출도

2010년 교사로 은퇴한 영국의 제니퍼 윌슨 씨(70)는 2016년부터 은퇴자 학습공동체 'U3A'(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활동에 여념이 없다. 영국 U3A는 회원 수 40만 명 이상, 산하 소규모 그룹만 1000여 곳이 넘는 대형 노인 커뮤니티다. 윌슨 씨는 "U3A 구성원들이 서로는 노년기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대해 흥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U3A는 단순 친목단체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000여 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 영국 육스 퍼드대의 지원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의 일상 이야기와 물건을 담은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

를 만든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영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영올드가 출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연소득은 2023년 기준 3469만 원으로 2020년보다 442만 원 늘었다.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고졸 비율은 2020년 28.4%에서 31.2%로 2.8%포인트 증가했고, 전문대 이상 졸업자도 같은 기간 1.1%포인트 늘어 7.0%로 집계됐다.

하지만 영올드의 등장과 동시에 한국 노인들의 외로움과 빈곤 문제 역시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565만5000가구로, 이 중 213만 8000가구(37.8%)가 홀몸노인이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55.8%)은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佛, 월 590만원 연금 수급자 75만명... 韓, 부동산 대출이자에 허덕

美, '잔액 14억' 연금부자 사상 최다
韓고령층은 대부분 집에 자산 묶여
비금융자산 비율 77%... 美-日的 2배
"부동산 연금화로 소니 기반 마련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연금 백만장자인 영올드가 소비의 버팀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고령층은 집 한 채에 자산 대부분이 묶여 있

어 소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최대 퇴직연금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에 따르면 미국 중산의 상층부에 타고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피델리티 401K(미국 퇴직연금제도) 가입 자 중 계좌에 100만 달러(약 14억 원) 이상 잔액을 가진 가입자가 4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프랑스도 연금 부자가 적지 않다. 프랑스 연금조사청 및 통계위원회(DREES)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월 4000유로(약 59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는 약 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연금 수급자 1700만 명 중 4.4%에 해당한다.

이들 연금 부자가 거침없이 지갑을 열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영올드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인이 보유한 순자산의 77.1%가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채권 등 금융자산 비율은 22.9%에 그쳤다. 한국인의 비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미국(37.3%), 일본(43.1%·2022년 기준)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금화가 가능하고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금융 자산과 달리 부동산 자산은 즉시 유동화하기 어렵고 대출이자 등으로 그나마 있는 소득을 감당하는

다. 상장주 한국의 고령자들이 은퇴 후 소득정책에 시달리며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령층의 저금단을 반영하듯 대출도 확대되고 있다. 주택 구매를 위해 빌린 돈에 생활비 부족에 따른 대출 수요까지 더해지며 대출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추정한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 잔액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지난해 9월 말 20%까지 뛰었다. 이에 올해 1965년생 은퇴를 시작으로 954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부머가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로 은퇴 수순을 밟는다. 시장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씬머니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부동산의 연금화 등으로 고령층의 소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단기간 내에 정적으로 쉽게 바뀌기 힘든 만큼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취재팀
▽탐정 장영준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
▽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우경, 영국=김수연 기자
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이 특파원
서울=전주영 이윤호 조영형 신이형 기자

관절, 연골, 뼈 건강을 한번에!

편한 관절

연골 손상되면 회복 어려워
1200mg 건강기능식품 확인하고
통증 개선 등 임상결과 살펴야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불편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70세 이상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퇴행성관절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급증하는 노인성 질환입니다. 무릎을 강하게 있는 연골에는 신경세포가 있어 손상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40대 이상 10명 중 9명은 방사선 학적으로 퇴행성 관절 변화를 보이지만 30% 정도만이 증상을 보였습니다.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을 유발하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줍니다. (건강정보) 출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뼈, 관절 편 / 슬관절학회 퇴행성관절염(기타) 연구단(콘드로이친 환산)·단백은 연골 조직을 이루는 구성성분으로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 중의제약 권한관절

콘드로이친 1,200mg*

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일어나는 분께 권한다. JW중의제약에서는 조선일보 2024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수상상을 기념하여 중의 권한관절 연구단단백 콘드로이친 1200* 4개월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2개월분을 추가로 드립니다. 관절은 나이가 들수록 덜고 연골의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50년 넘게 쓴 관절 이체부터라도 소 유래 100% 권한관절 연구단단백 콘드로이친 1200*으로 잘 관리하면서 가벼운 일상, 탄탄한 노후를 준비하자.

관절·뼈 건강은 기본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 까지

간편하게 소용한 권한관절 연구단단백

- 제품명 : 권한관절 연구단단백 콘드로이친 1200
- 내용량 : 1000mg × 603(100)
- 섭취방법 및 섭취량 : 1일 1회 2건을 물과 함께 섭취

※본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朝鮮日報 선정 2024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소 유래 연골 100%

연구단단백 **콘드로이친 1,200mg***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100% 충족**

기능성 원료인 연구단단백 인체적용시험 결과

① 무릎 관절 통증 (VAS) 개선

② WOMAC 통증 개선

③ WOMAC 세부항목 중 신체적 기능 개선

④ 계단 내려가기 (WOMAC) 개선

© 2024 JW MEDICAL FOOD CHEM. 2024.12.31까지 유효 (800-40-7040)
 *연구단단백 기준 기능성 평가대상인: 40세 이상 70세 이하, 60-70세 30-70세
 *본 제품(연구단단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OMAC은 관절 건강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연구단단백 콘드로이친 수상기념 4+2 (300세트) 특별행사 ★

주문의 **080-567-9900**

“영올드 잡자” 금융사가 유산 정리에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4> 떠오르는 ‘영올드 비즈니스’

금융권, 치매-장조-상속 등 급속 신박 비즈니스~ 디과 제휴도

건강 체크 번기-돌봄용 입육장치 등 美-日선 ‘에이징 테크’도 급부상

실버산업, 2030년 168조 규모 예상

‘귀여운 애완동물도 천수(타고난 수명)를 누리게 해드립니다.’

자녀에 딸 방문한 아시아 최대 신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신박그룹 도쿄 본사에서 받아온 ‘오히토리마신박’(1인 가구 신박) 금융상품 안내서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본 최초로 신박 사업을 시작한 이 회사는 다양한 고품질 대상 금융 서비스에 더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상품까지 내놓았다. 금융회사가 노년층을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상품까지 내놓았다. 금융회사가 노년층을 위한 금융 상품에 대해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상품까지 내놓았다.

다나카지 요시미즈 미쓰이스미토모신박그룹 특별이사는 “각각의 서비스를 개별 업체에 맡기려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 제대로 이행했는 지 등을 담보할 수 없다. 은행의 ‘실로버’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역할을 맡기는 것”이라며 “해당 상품은 고객 수요가 많아 꾸준한 가입 건수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급부상하면서 고령자들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산업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고, 일상생활에서부터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로봇과 같은 최첨단 기술, ‘에이징 테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은행들, 앞다퉈 신박 비즈니스로... ‘에이징 테크’도 급부상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아이조라은행 등 일본 금융회사들은 고령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언 신박과 유산 정리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유언서 작성과 보관, 유언 집행까지 은행이 맡아 해주고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 재산의 인도까지 아우른다. 평생 일군 재산을 ‘나눠뺐다’ 정확하게 상속되길 원하는 특목형 영올드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한국 금융회사들도 최근 신박 비즈니스에 대거 뛰어들고 있다. 치매가 발생하면 윤용 자금을 병인, 간병, 생활비 등으로 지원해 주는 치매 신박(후견 지원 신박), 사망 시 장례비를 준비해 주는 상조 신박, 손주 등의 대학 입학이나 결혼 등 행사 발생 시 일정한 금액을 상속하거나 증여해 주는 이벤트 신박 등이 대표적이다. 신박 비즈니스 활성화 위해 해금융그룹은 미쓰이스미토모신박과 협력 업무 제휴를 맺기도 했다.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등 최신 기술에 상대적으로 친숙한 영올드를 겨냥한 각종 테크놀로지, 일명 ‘에이징 테크’도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카사나’는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번기 카메라를 개발했다. 번기 카메라 센서를 달 아심박수, 혈중 산소 수치, 심박수 변화, 화장실



사용 빈도 등을 측정해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고령자와 케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도와준다.

미국 ‘다이트헬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이와 건강 상태에 적합한 맞춤형 운동과 영양 계획을 제안해 주고 나섰다.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지수 저하, 폐경 관리 등에 대한 전문 강좌도 제공한다.

일본 최대 손해보험사 손보재팬보험이 만든 요양 사업자 ‘손보케어’는 2019년 ‘퓨처케어 맵인 저널’을 설립하면서 요양 기술을 개발해 왔다. 대표적인 게 돌봄용 입육 장치, 휠체어에 탄 채로 오르고 내릴 필요 없이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로 2021년

9월 개발해 200여 대를 보급했다. 손보재팬보험 관계자는 “낙상 위험 등을 사전에 감지해 주는 수면 측정기도 1만8000여 대를 도입하는 등 요양 산업에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니어 리빙’ 시장도 확대

고령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돌봄 서비스 등을 결합한 시니어 리빙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시니어 리빙 시장은 중심으로 한 실버산업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운동 시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갖춘 후주의 ‘BUA(부파) 은택마을’에서 만난 린 씨(78)는 “집을 팔아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이경자 팀장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5060세대가 곧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시니어 하우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10년이 상성의 번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별취재팀

▽집장 정윤정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
▽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김우석, 일본=신수경, 영국=김수연 기자
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아 특파원
서울=전주영 이윤호 조영형 신이형 기자

“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활용 추진”

금융위, 노후지원 보험 도입 나서 “유동화 가능 종신보험 360만건” ISA에 ‘의료 저축계좌’ 기능도

‘영올드’의 부상에 발맞춰 국내 금융시장도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9일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노후저축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는 차원에서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요양시설 입주권 등으로 유동화(현금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납입을 마치고 유동화 여력이 되는 종신보험 계약 건수가 360만 건 정도”라며 “고령층은 금융자산이 적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험도 주력연금처럼 활용할 필

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이 도입되면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고 50%를 연금으로 받기로 할 경우 1억5000만 원을 연금으로 다달이 수령하고, 나머지 1억5000만 원은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식이다.

정부는 또 세대 재력이 풍부해 ‘민생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 계좌에 ‘의료 저축계좌’의 기능도 부여한다. ISA의 경우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인출할 때 납입한도를 복원해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을 유가족들을 위해 미리 맞춤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금 청구권 신박’도 지난해 11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판매된 신박 상품은 부동산, 퇴직연금, 펀드 등이 대상으로 보험성 자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법령 개정을 거쳐 보험금을 신박 재산에 추가하면서 금융사가 고객을 대신해 사망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이면 보험금 청구권 신박에 가입해 사망보험금의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의 세부사항을 계획해 놓을 수 있다.

정오 씨(41)는 3년 전 이혼한 뒤 올해 여름 살던 외딴마을을 기우고 있다. 정 씨는 최근 은행 상담을 거쳐 3억 원의 ‘보험금 청구권 신박’ 계약을 체결했다. 딸의 대학 입학 후 졸업까지 매년 2000만 원씩 학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딸의 졸업 이후 한꺼번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정 씨는 “아이 가 미성년일 때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딸이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로 걱정을 없앨 것이라 안심”이라고 전했다.

상의 “소비 큰손 떠오른 ‘시니어 GG’ 공략해야”

(그랜드 제너레이션)

“향후 30년간 GG 소비력 확대될 것” MZ 중심 사업전략 전환 서둘러야

“노인 1000만 시대, 소비시장 큰손으로 부상하는 ‘그랜드 제너레이션(GG)’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GG마켓 공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시니어 시장 선점을 위한 7가지 공략 방안을 제시했다. GG는 은퇴를 앞둔 60대 이상을 가리킨다. 보고서는 앞으로 30년간 확대될 GG 소비력을 고려해 20~40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심의 사업전략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노정 동국대 신학협력단 교수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혼자서 20~30년 이상 오래 사는 121가구 가 일반화되면 소비방식과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

라질 수밖에 없다”며 “GG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패턴 이르는 기업이 시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G는 신체 나이보다 10년 이상 짧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세대보다 연령을 낮춘 ‘감성나이(Mind-aging)’ 기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라고 조언했다. 또 GG는 투자가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셀프 뷰티’ 상품을 제시하는 게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셀프 에이징(Self-aging)’ 가치관 확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셀프 부양 서비스나 개인 맞춤형 식단, 가사·쇼핑 대행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시니어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연계를 브랜드 이미지와 충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현 기자 beepark@donga.com

보상계좌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025. 01. 31. **괴산군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상송리 4-1 영리마을에 시행하는 ‘인상소하천변사업’의 1번일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호 및 제23호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 괴산군수 나.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 9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소하천변사업 나. 사업명: 인상소하천변사업
다. 사업장: 소하천변사업 L-1.62km 라. 사업 기간: 2025. - 2028년.

3. 사업 예정지
가.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상송리-아래와 동일

4.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 기간: 2025년 01월 31일 - 2025년 02월 17일(09:00~18:00)
나. 열람 장소: 괴산군청 2층 2025-01-31(수) 2층 2025-02-17(수) 2층
다. 의견제출: 1층(의무) 2층(의사) 2025.01.31(수) 09:00~18:00(의사) 2025.02.17(수) 09:00~18:00(의사)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 3항 1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보상금액을 산출한 후 해당공공기관에 공익사업(소유권 이전 등) 보상을 지급한다.
나. 보상금 지급 시 소유자가 소유권(공익사업)을 취득한 날(18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제 1호에 따라 소유자가 보상청구 기간을 불로 청구한 경우 해당 공익사업 대상 토지(이하 ‘1호’)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영농 토지 소유자 후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48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보상 절차: 보상계획 공고 열람 → 신청서 접수 → 보상 신청서 접수 → 보상 결정 → 보상금 지급

6. 기타 사항
가. 보상금 지급 시는 2025년 04월 09일(수) 오전 10시에 열람한 것에 변경할 것이 없을지 및 나. 조서 내 내용에 불응하는 등 불응, 추후 불응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유의한다.
다. 보상청구 기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에 관한 권리(취득권)는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라. 보상청구 기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에 관한 권리(취득권)는 상실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마. 본 공고에 기재된 사항은 수속, 절차하는 사항 및 영농토지 보상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익사업 대상 토지(이하 ‘1호’)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영농 토지 소유자 후손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48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청 2층 2025-01-31(수) 09:00~18:00(의사) 2025-02-17(수) 09:00~18:00(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

본 사 A D 본 부 (02)2028-0500 수 도 분 광 고 사 (03)437-1921
서울 광 동 구 사 (02)385-5651 대 천 송 발 광 고 사 (04)253-0500
경 남 광 동 구 사 (02)762-0500 강 원 광 동 구 사 (02)203-0500
충 청 남 대 천 구 사 (02)702-0671 대구 광 동 구 사 (05)376-0700
대 경 광 동 구 사 (03)1901-4989 부산 남 구 사 (05)182-1638
미 디 어 신 박 광 동 구 사 010-8991-8628 부산 북 구 사 (02)952-0002

임시 출회 공고문

1. 회원명: 2025년 01월 09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
2. 회원주소: 원도동(의무) 동부대천동(의사) 2025년 02월 05일
3. 장제대상: 원도동(의무) 동부대천동(의사) 2025년 01월 09일(토) 19시(의사)
4. 회관명: 1. 원도동(의무) 2. 동부대천동(의사) 3. 원도동(의무) 4. 원도동(의무) 5. 원도동(의무)
5. 장제비용: 장제비용은 장제비용을 산출한 후 장제비용을 지급한다.
6. 장제비용: 장제비용은 장제비용을 산출한 후 장제비용을 지급한다.
7. 장제비용: 장제비용은 장제비용을 산출한 후 장제비용을 지급한다.

모지보양

경기 여주이전공주 양평 원동원복수목장
개인묘, 남묘, 자전장 수목장
문의 010-9046-7402

법인 양도 양수

010-3453-6170

친구를 찾습니다.

안양에서 미술학원 선생으로 근무했었고 수업을 했던 이재중의 친구 이연희를 찾습니다.
010-8748-4474

살고싶은 집 단독주택

유은혜 지음 | 값 21,000원 | 동아일보사

내란? 계엄? '서울의 봄' 데자뷰... 권력은 왜 다시 국민에게 충구를 겨눴나

반복의 역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숨죽였던 생생한 기록

블루엘리펀트

12·12 군사반란으로 시작된 6월 민주항쟁으로 막 내린 전두환 정권은 8년을 남산(국가안전기획부)을 통해 조종했다. 정치 공작, 이권 개입, 도청, 미행, 고문을 서슴치 않았던 5공 1기부의 흑역사 최초 실증 해부, 드라마 이상의 현경감, 돋보이는 팩트와 분석력, 권력과 인간의 본질을 파고든 불굴의 기자정신을 만날 수 있다.

★ “전두환은 중재 예산의 15%인 120억 원을 통치자금으로 썼다.” 동아일보
★ “5공 정부부 재에서 권력의 민낯을 보았다.” 조선일보
★ “군사정권 시절 제왕적 권력에 현미경을 들이대다.” 세계일보
★ “악기 사학자권 손에서 떼지 못했다.” 김지영 특권대 교수
★ “자식은 신성, 눈에는 자유라는 연은 교과서 같은 실연” 김현정 CBS 연방
★ “내대사 연구자들이 꼭 봐야 할 필독서.” 서경석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동식 지음
각권 19,000원
1,2권권 34,400원

강의 듣고 대학시설도 이용... '캠퍼스 안 영올드 마을' UBRC 뜬다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5>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 UBRC

6일 오후 찾은 부산 남구 동명대 정문 앞. 대학 가깝게 백도널드, 스타벅스를 비롯해 각종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했다. 차량으로 5분만 이동하면 부산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경성대, 부경대 변화가에 닿을 수 있는 이곳에 이제 3년여 뒤엔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들이 청년과 호흡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가 조성된다. 동명대에서 만난 강승한 캠퍼스혁신팀장은 "이 일대에 2027년까지 1000여 명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건립되고, 바로 옆에 UBRC가 조성될 것"이라며 "젊게 살고 싶어 하는 은퇴자들로 북적일 것"이라고 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면서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가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UBRC의 도입이 본격화됐다. 노년기를 제2의 자아실현 기회로 여기는 영올드들로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평생 교육 기회도 누릴 수 있는 UBRC가 매력적인 주거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도 수의 다각화 차원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 동명대, 국내 첫 UBRC 조성 계획

10일 동명대에 따르면 대학은 현재 UBRC의 건축, 운영을 위한 기초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전호환 총장은 "공사가 끝나고 거주 시설이 완공되면 UBRC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UBRC란 대학 캠퍼스 안에 지어지는 은퇴자 주거 단지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했다. 1980년대 미국 인디애나에 생긴 '메도우스 은퇴자 커뮤니티'가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2000년대 들어 UBRC의 인기는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 거주지는 강의실, 피트니스센터 등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대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동명대는 국내에서 UBRC에 도전하는 첫 대학이다. 반려동물학과, 언어청각재활학과, 간호학과 등 은퇴자의 관심도가 높은 전공을 운영 중인 만큼 '인생 2막'을 꿈꾸는 이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 주거단지를 빌려 주는 방식으로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임대료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에서 UBRC를 통해 '수익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 팀장은 "(UBRC가 구축되면) 자연스레 시니어 맞춤형 비용 및 건강 관리를 위한 회사들이 생겨나 이 일대가 부산의 '노인 복지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美, 2032년까지 UBRC 400개로 증가'

은퇴자 주거 단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미국에

영올드의 주요 특징

생활 의식	미래지향적
노년기 인식	자아 실현의 기회
삶의 태도	여유, 즐김, 여러 취미
사회 참여도	활발히 사회활동 참여

? UBRC란?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로, 고령자가 대학 캠퍼스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평생 교육, 건강관리, 사회참여 활동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일 오후 동명대 관계자가 부산 남구 동명대 캠퍼스 내 UBRC 조성 부지를 가리키고 있다(적은 사진). 미국에서는 이미 이 같은 UBRC가 100곳 넘게 운영 중으로 그중 하나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의 미라벨라(Mirabella at ASU)에서 입주자가 그린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부산=김희영 기자 run@donga.com·에라조나주립대 미라벨라 홈페이지

한국 실버시장 규모

단위: 원

자료: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영올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거주 대학은 임대료 등 수익 창출하고 남은 시설 활용 가능해 인식이 조망, 2032년까지 UBRC 400개 조성

부산 동명대, 국내 첫 UBRC 추진 "젊게 살고 싶은 영올드 북적일 것"

는 현재 이미 100개 이상의 UBRC가 조성돼 있다. 미국은퇴자협회는 영올드의 부상에 힘입어 2032년까지 UBRC가 4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UBRC가 대학뿐 아니라 호기심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영올드 은퇴자에게도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유선준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존의 시니어 타운과 달리 UBRC는 대학이라는 공간을 통해 거주자 교육, 입주인 간의 교감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며 "국내 지방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잉여 시설 문제가 큰데, UBRC를 활용해 이 같은 자원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UBRC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플로리다주립대의 '오크 해브'와 스캘퍼드대의 '클래식 레지던스'가 꼽힌다. 지난해 100세를 맞이한 거주자 로니 톰프슨 씨는 3일 오후 해먹과의 인터뷰에서 "입주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됐고요 그동안 이곳

에서 좋은 서비스와 인간관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만 모여 있는 단지를 만들면 폐쇄적인 데다 고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젊은 세대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학습할 능력을 배양시켜 준다는 점에서 UBRC는 유의미한 공간"이라고 평가했다.

● 선진국, 대학·시니어 교류 활발

지난해 11월 본보가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 본관의 강의실들은 흰머리가거나 머리숱이 적은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 곳의 강의실에서 문학, 인도 경제, 천문학 수업 등을 듣는 고령층 수강생만 100명에 육박했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대학들도 고령화에 발맞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희망하는 시니어층을 타겟으로 도서관을 개방하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레이던, 틸뷔르흐 등 주요 대학 5곳이 '노인을 위한 고등교육(HOVO)'을 운영 중이다. 스페인도 고령층의 평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주립 노인대학 프로그램 협회'를 별도로 꾸리고 있다.

지난해 말 암스테르담자유대에서 만난 카롤리언 판 페르헨 HOVO 프로그램 디렉터는 "많은 고령자들이 3~4일 정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각자의 흥미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찾아온다"며 "(고령자들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김희영 기자 run@donga.com / 특별취재팀

日 "고령자 심리적 고독·고립감 없앤다" MZ세대와 짝꿍 맺는 '못토 메이트' 등장

(정철 서비스)

대학생 정기적으로 방문해 대화 가사 대행·간병 사이 공백 메워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손주벌 되는 대학생들이 혼자 사는 고령자의 '짝꿍'이 되어주는 서비스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심리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에서 나온 '못토 메이트' 서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좋은 파트너라는 의미의 해당 서비스는 '시니어 세대의 웰빙을 실현하는 손주 세대 짝꿍'이라는 콘셉트로 2020년부터 일본에서 운영됐다. 이를 운영하는 회사 '에이지웰저팬'은 "금전적인 여유없는 별개로 의뢰하는 고령자들이 많다"며 "시니어 세대의 고독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립심과 존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의 회원이 되면 짝꿍이 된 대학생이 정기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스마트폰이나 가전 사용법 등을 가르쳐준다. 고령자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외출 시 동반하기도 한다. '대학생 짝꿍'은 고령자를 방문할 때마다 고객 진로기록 카드를 휴대하여 150개의 질문지 중 3, 4개 문항씩 답변을 함께 채워 나간다. 예컨대 고령자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문고 그 학교를 구글 맵으로 검색해 유튜브로 교가를 찾아 보는 등 친숙한 것들로부터 디지털을 습득하는 방식이다.

정기적인 대화, 서로의 개별적 고민을 들어주면서 기존의 가사 대행이나 간병 서비스 사이의 공백 지대를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비슷한 세대보다 차라리 한 세대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서로를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한다.

"대학생 짝꿍"은 엄격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다. 면접에서는 '누구를 왜 존경하고 있는가' 등 심층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자와의 소통해야 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다.

합격 후엔 고령자와의 밀착형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도록 교육받는다. 특히 행동지침에 대한 연구, 상대방의 요구를 어떻게 발굴해 어떻게 요구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호스피탈리티 연구 등을 거치며 수준에 따라 시급도 달라진다.

특별취재팀

▽탐정 장영준 경제부 차장 yunjung@donga.com
▽호주=송혜미, 네덜란드=독일=강우석, 일본=신무경, 영국=김수연 기자
뉴욕=임우선 특파원, 파리=조은이 특파원
서울=전주영 이동훈 조영형 신아형 기자

울산·경남 지역 대학의 협력과 혁신으로 지속 발전 제시

YouTube 생중계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공식채널

·2025·

울산·경남 지역혁신포럼

지역의 미래: RIS를 넘어 RISE로

25.02.13.13:30

CECO 창원컨벤션센터

구분	내용	
13:00~13:30	등록	
13:30~14:00	개회	
14:00~14:50	USG공유대학 인증서 수여식	
14:50~15:00	휴식	
15:00~15:10	사업단 공로자 시상식	
15:10~16:20	우수성과 발표	대학교육혁신본부
		5개 핵심분야 사업단
		총괄운영센터
16:20~16:50	특강	울산 RISE 발전방향
		경남 RISE 발전방향
16:50~17:00	휴식	
17:00~17:50	토론	
18:00	폐회	

주최·주관 |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CECO 창원컨벤션센터

